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 **'우아한 나체들'**, 토리노 마르 델 플라타에서도 인정

부르주아와 나체주의자의 갈등 놀라운 섬세함 · 정확한 통찰력으로

토리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마르 델 플라타에서는 최우수감독상 등 영예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 〈우아한 나체들〉(감독 루카스 발렌타 리너)이 제34회 토리노 국제영화제와 제31회 마르 델 플라타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우아한 나체들〉은 지난 26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34회 토리노 국제영화제의 시상식에서 열다섯 편의 작품이 여섯 개 부문의 시상부문을 두고 경합을 벌인 '국제경쟁' 부문의 '심사위원특별상(상금 7,000유로)'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토리노 국제영화제 측은 "부르주아 집단과 나체주의자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놀라운 섬세함과 정확한 통찰력으로 탐구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이라며 선정의 변을 밝혔다.

영화 '우아한 나체들'의 스틸 컷.

이어 2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31회 마르 델 플라타 국제영화제의 폐막식에서는 아르헨티나 자국 영화를 대상으로 한 국내경쟁부문 '최우수감독상과 신인여우상'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루카스 발렌타 리너 감독은 "영화가 만들어진 곳인 아르헨티나에서의 상영과 수상은 제작진 모두에게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2014 선정작인 〈산다〉(감독 박정범)가 제29회 마르 델 플라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오브라 씨네 배급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2015 선정작 〈엘 모비미엔토〉(감독 벤자민 나이스타트)가 아르헨티나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우아한 나체들〉이 2관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남미 국제영화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우아한 나체들〉은 해외영화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디지털 개봉을 통해 한국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해외 지류 전문가들 "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6일부터 4일간 대승한지마을에서 '한지 국내 워크숍'

장인으로부터 전통한지 제작과정 배우기 등 구성

한지의 본고장 대승한지마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우리 한지를 해외 지류전문가들에게 선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지류 전문가 대상 한지 국내 워크숍'이 오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승한지마을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지 워크숍은 해외 지류 전문가들이 한지 제작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는 예술가도 전문가 그룹에 포함돼 예술 작품의 소재로서 한지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워크숍은 8개국에서 모인 해외 지류 전문가 17명이 참석한다. 영국 테이트(Tate),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of Singapore), 이탈리아 로마예술대학(Accademia di Belle Art of Roma)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복원가와 예술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보존전문 기술자 해리 킹(Harry King)을 비롯해 로라 살비(Laura Salvi) 이탈리아 로마예술대학 교수, 리카르도 아요사(Riccardo Ajossa) 교수, 영국 설치 예술가 사이먼 바크워스(Simon Barkworth) 등이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워크숍 참가자 가운데는 '2014년 한지세계화 전략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 당시 발제자의 추천으로 참가한 전문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테이트(Tate)의 보존전문가(Conservation Manager)인 교포 최윤선씨는 2014년 국제세미나에서 한지에 대한 우수성과 유통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2016년도 워크숍에 참가해 한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이 운영하는 문경 전통한지의 한지 제조장을 답사한 후, 대승 한지마을로 이동해 곽교만 장인으로부터 전통한지 제작 과정(외발뜨기, 닥나무 껍질 벗기기, 한지 뜨고 건조하기 등) 배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한지장과 함께 한지를 직접 제작하며, 소재로서의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한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각국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지 홍보와 활성화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한지 사업 담당자는 "한지 국내 워크숍은 단순 전시만 했던 한지를 해외 지류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해보며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에 준공한 대승한지마을은 전통방식의 한지를 제조하는 공장과 한지 생활사 전시관, 전통 한옥체험관 등으로 조성돼 지역의 무형 자산인 전통한지 제조 기술 구현 및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제 생활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사단법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교류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다지는 생활문화 어울림 한마당 잔치인 제5회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삼삼오오 동go동樂'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 부터 음악 · 전통 · 무용분야의 공연발표와 서예 · 미술 · 공예분야의 작품전시 및 체험, 우수동호회 시상과 연합퍼포먼스 등으로 계획 된 이번 행사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서로 응원하고 아직 활동하지 않는 시민에게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토록 하기 위한 홍보를 겸한 생활문화 한마당 행사이다.

진금도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사장은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생활 속에서 행복을 충전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발표

군산여고 유소현 서흥중 이연주 진포초 김성민 전북도지사상

지난 10월 전북도와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의 수상작이 1일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 전라북도지사상은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소현(고등부)양과 서흥중학교 1학년 이연주(중등부)양, 진포초등학교 5학년 김성민(초등부)군이 선정됐다.

주최측은 미대교수, 지역 예술협회 관계자, 교육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294점의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에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상장과 가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부상이 수여되며, 상장과 부상은 별도 시상식을 갖지 않고 각 학교로 전달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군산을 비롯한 전북 각 지역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으로, 수상작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문광재단 '문화파출소 덕진' 조성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금암치안센터의 범죄피해자치유센터를 '문화파출소 덕진'으로 조성한다.

문화파출소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치안센터를 활용,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 활동 및 범죄피해자의 예술치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운영 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설 리모델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예술치료 및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드로잉 다이어리', '한 장, 한줄 소심한 이야기' 등 일상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변신 오색동물',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탐험 하고 여러 장소와 관계를 문화예술 활동으로 경험하고 예술로 채우는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등 지역주민대상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는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학교 전담경찰관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찰관의 직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힐링)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내일 수지미술관 '남원을 담다' 전시

남원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 잡은 수지미술관(관장 심은희)이 다섯번째 전시회 '남원을 담다展'을 연다.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정신 그룹의 25인 작가 기획 초대전으로 4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장식, 권기동 작가를 비롯한 현대 한국 회화의 시대를 반영하는 회화정신 그룹 작가들의 기획 초대전으로 한국 현대 아트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회화정신전은 동양화, 서양화라는 전공의 개념이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화단에서도 장르의 개념으로 고착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 1988년에 처음 출발했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은 12월 3일 오후 3시 수지미술관 아뜰리에에서 진행되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지미술관(☎063-631-1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2월 2일〉

▷쥐띠
48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쓸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60년생: 매사 늦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72년생: 건강에 주의기 필요한 운. 섭생에 주의하고 무리하지 마라.
84년생: 금전운은 좋아지나 타인과의 관계에는 좋지 못한 운이다.

▷소띠
49년생: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들어오나 타인의 일에 나서지는 마라.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여라.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추진하라.
6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난을 불러오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라.
86년생: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
63년생: 정신적으로 뚜렷하고 맑지 않다.
75년생: 매사 몸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안정시켜 대처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구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용띠
5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사람의 편을 들지 마라.
6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먼저 베풀어도 좋다.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욕심은 버려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발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경 써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66년생: 식복이 있는 날이다.
78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은이다.
90년생: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길 수 있다.
67년생: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사람들과의 관계나 준비한 것의 결과는 좋은 운이다.
91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날.

▷원숭이띠
56년생: 인덕이 따르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68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80년생: 지나친 의욕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92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닭띠
57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른다.
69년생: 투자나 투기는 금물.
81년생: 윗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93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개띠
46년생: 태양이 밝게 비추니 의기양양한 운이다. 자신 있게 진행하라.
58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봐라.
70년생: 인덕이 따르고 식록이 들어온다.
8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발생하니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독단독행을 삼가라.
59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다.
7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윗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83년생: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